

|                                                                                                                                                                                                                |      |                    |                              |
|----------------------------------------------------------------------------------------------------------------------------------------------------------------------------------------------------------------|------|--------------------|------------------------------|
| 문 의                                                                                                                                                                                                            | 대변인실 | 대변인 이춘무<br>서기관 배재현 | 042-481-5027<br>042-481-5029 |
|   2019년 8월 13일(화) 배포(09:00)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한국인 최초 특허, 독립운동 자금이 되다

### - 대전현충원에서 한국인 제1호 특허권자 정인호 애국지사 추모식 개최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한국인 제 1호 특허권자로 독립운동에 헌신한 정인호 선생(1869.10.~1945.1.)의 애국정신과 한국 특허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추모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 행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광복 74주년, 정인호 선생의 특허등록 110주년을 기념해 오는 13일 오후 3시 대전현충원 정인호 선생의 애국지사 묘역에서 진행된다. 추모식에는 선생의 후손(증손녀 4명)들과 박원주 특허청장, 대전현충원장 등이 참석해 선생을 추모할 예정이다.
- 특허청은 선생의 후손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독립운동과 민족교육운동에 헌신한 선생의 업적을 기릴 예정이다. 또한 한국인 제 1호 특허권자로 한국 특허사에 남긴 이정표를 기념하기 위해 선생의 묘역에 상징물을 부착해 특허제도에 기여한 공로도 기릴 계획이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일본제도에 의한 한국인 1호 특허가 역설적이게 민족기업을 성장시켜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지원하며 독립운동의 숨은 자금원이 됐다”며 “한국인 1호 특허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를 극복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점이 자랑스럽다”며,
-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 특허분야에선 200만번째 특허등록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200만건에 달하는 특허와 새롭게 축적될 특허들이 우리경제의 위기를 돌파하고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인 1호 특허권자인 정인호 선생은, 1908년 초등대한역사 등 교과서를 저술해 민족교육운동에 앞장섰고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지원하던 활동으로 징역(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훈록

### [정인호 지사 약력]

- 정인호(1869.10.~1945.1.) 선생은 경기도 양주출신으로 궁내부 감증관과 청도군수를 지냈고 일제의 침략이 가속화되자 군수직을 사직하고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 1908년 초등대한역사 등 교과서를 저술해 교육을 통한 민족교육운동에 힘쓰는 등 교육자, 저술가, 발명가로 활동하며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 1909년 8월 19일 통감부 특허국에 특허 제 133호로 말총모자 특허를 등록받으며 한국인 특허 1호의 주인공으로 우리 특허사에도 큰 이정표를 남겼다.
  - 일제에 의한 특허제도\*이지만 한국인 최초로 특허를 획득했고 일본에도 특허를 출원해 등록받았다.
    - \* 당시 우리의 특허제도는 일본에 의해 1908년 한국특허령이 시행되며 도입됐다. 이는 일본의 특허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한국 내에서 미국과 일본의 권리보호에 주안점을 둔 제도였다. 경술국치후엔 한국특허령을 폐지하고 일본 특허법을 그대로 운영했다.
  - 선생은 한국인 최초의 특허권자로 말총모자, 말총 핸드팩, 말총 토수, 말총 셔츠 등 다양한 말총제품을 제작해 일본, 중국 등에 수출하며 민족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독립구국단을 결성해 상해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지원하며 독립운동을 도왔다.
  -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던 활동으로 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 정부는 독립 운동가의 공훈을 인정해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했고, 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됐다.

\* 출처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훈록, 한국특허제도사

\* 붙임: 추모식 행사 계획안, 일본에 등록받은 말총모자 특허, 말총모자 광고(대한매일신보사)

☐ 일시 : 2019. 8. 13(화) 15시

☐ 장소 : 대전현충원

☐ 참석 : 정인호 지사 후손(증손녀 4명), 특허청장, 대전현충원장

☐ 내용 : 지사 후손과의 간담회, 묘역 헌화, 한국인 제1호 특허권자 표식 설치

☐ 계획

| 일 정              | 세 부 계 획              | 비 고         |
|------------------|----------------------|-------------|
| 15:00~15:20(20') | · 후손과의 차담회           | - 대전현충원     |
| 15:20~15:30(10') | · 묘역 헌화 및 분향         | - 청장, 후손 등  |
| 15:30~15:50(20') | · 한국인 제1호 특허권자 표식 설치 | - 정인호 지사 묘역 |

정인호 지사가 경술국치 후 일본에 등록받은 말총모자 특허 제 19475호  
(구 한국특허 제 133호로 통감부 특허국에 등록받은 말총모자 특허로 기록 1909.8.19)

特許第一九四七五號

〔舊韓國特許第二三三號ノ追加〕

第四百四類

出願 明治四十二年八月十九日  
特許 明治四十四年三月三日

明細書

駿帽子

發明ノ性質及ヒ目的ノ要領

本發明ハ舊韓國特許第一三三號ヲ擴張シ帽子全體ヲ馬毛ヲ以テ編製シ而シテ其ノ帽子ノ材料分子タル馬毛ノ組方編方ノ如何ニ拘ハラス之ニ裏地底等ヲ附シテ作リタルモノニシテ其ノ目的トスル所ハ輕薄ニシテ夏季ノ冠用ニ適シ且ツ屢洗濯ニ堪ヘシムルニアリ

圖面ノ略解

別紙圖面ハ本發明ノ構造形狀ヲ示スモノニシテ第一圖ハ禮帽第二圖ハ米利堅帽第三圖ハ烏打帽ヲ示スモノナリ

右諸圖ニ於テ同一符號ハ同一部分ヲ示ス

發明ノ詳細ナル説明

本發明ハ帽體(一)鑄口(二)飾紐(三)ヲ皆馬毛ヲ以テ編成シ夫々ノ形狀ニ作成シ且ツ第三圖ノ如キ烏打帽ノ場合ニハ

之ニ庇ミヲ附シ而シテ裏面ニハ適宜ノ織物ヲ以テ普通ノ帽子ノ如ク裏ヲ附スルモノトス

特許請求ノ範圍

- 一 前文所記ノ目的ヲ達スル爲メ本文ニ詳記シ且ツ別紙第一圖第二圖第三圖ニ示ス形狀ノ帽子ヲ組方編方ノ如何ヲ問ハス馬毛ヲ以テ編成スルコト

特許第一九四七五號

駿  
帽  
子

圖一第



圖二第



圖三第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된 한국인 제1호 특허 말총모자 관련 광고<1> (1909.8.24.)

社告

敬啟者本報開刊有年其間...

大韓每日申報社

本報每日出版...

廣告

本校因第四回學生畢業...

大減價販賣

本號因舊曆歲終...

學員募集廣告

本校因第四回學生畢業...

果樹栽培學 森林學

土學 獸醫學 家畜學 肥料學

試驗科目

九月十一日下午一時

開學日誌

九月十三日

農林講習所

本校因第四回學生畢業...

大韓每日申報社

本報每日出版...

學員募集廣告

本校因第四回學生畢業...

果樹栽培學 森林學

土學 獸醫學 家畜學 肥料學

試驗科目

九月十一日下午一時

開學日誌

九月十三日

農林講習所

本校因第四回學生畢業...



(三) 丑巳日七拾小月六戌庚曆陰 號市百第報天

본 내 생  
이생네분은 연국에서 특별히 만든것인지 명유인지 무명인지인지  
를이 못가나 써가무든거시라도 이분으로 생면 주시 정하게 되음  
고 비누와 양치물 보담 감시현하고 현안하고 품질을 상하지 안  
코 경제상으로 말하여도 대단히 유익하고 사용법도 어렵지 안  
편리호 생네아이요 또물면 생물이라도 너무물거는지 안이후면  
번이라도 써보고 세수하거나 부인에 머리 감는것은 아조 물세  
여 쓰시면 써가 잘 생전나

店商坂田 店支坂田 店商頭鬼  
元賣發入輸 元賣發國韓 店賣販約特  
目丁貳堀佐土區西阪大 (番九七一四長話電)  
目丁三通門大南城京 (番七一一七話電)  
目丁三町仲川仁 (番六六話電)

▲項門一針▼  
▲釜山郡五里面都水口腰橋에 日人藤井이가水利를組合하야 稱고고人民에게兵器를使用示 威하야大堤를築고하엿다今 番漢水에點水가不濟하야幾千 石良田이水國이되고百餘戶家 屋이墾掘沈沒하야哭聲이狼籍 하다水利가아니라權利로고 ▲密洋女調査하노는說에兩耳 가如脂하노는間에淫風은漸 漸熾盛하노는을공인자眞品 賣漁女아調査하노는드러가나만 만호幸往賣洋女나경나지

廣告  
本人이陽六月三十拾日에京義直 行車에서姓名章을被盜하엿다 오니該章은休章으로施行호 平壤西門通化春病院崔龍化白 本人이張世琳의圓形木圖章을 路上遺失하노는故廣告하노는誰 某拾得該章은休章으로知知 鳳山洞仙面洛村 金冕瑞 白 本鐵工場에서各種鐵物機械等 屬을精密히製造와修理하노는

價目隨請仰星호는物目은左 에略開하노는 金彦은照亮後 陸續來求호는  
精米機械 馬車衙車 鐵組機械 壓油機械 切草機械 製繩機械 引水機械 製繩機械  
發縣機械 소리업고호는다를을 詳細來問호는  
京南門外藥硯中洞二百四拾 六號二戶 大韓鐵工場 白

諸彦은記憶하시다가 記하시거던 自白하시오  
昨年夏期에 多數生靈이非命에慘死하야  
一國이驚愕호는抑何를基因 호인가  
此는專히諸彦이衛生을重視하야나고 醫藥撰 擇에當을失호는이라고 自白 하시오  
아아 김나고 두려운 고래라 又단流行病  
김나고 두려운 고래라 又단流行病  
回生水蘇生丹이비로소此等病魔를驅逐하노는  
數萬의生命을救濟호는過去의不遠호는昨夏活 歷史의證 하노는비다

諸彦에問하노는萬物의靈人間으로 誰가生 命을不愛하노는有호는生命을愛하노는人으로 誰가回 生水和蘇生丹을不備호는者有호는리有호는가거던우 리京城鍾路和平堂大藥房으로來하시요  
電話 壹六九七番  
電器話 (一) (二)

○大韓新發明製支所廣告  
我國新發明製支所는京城銅峴玉虎書林 主務鄭寅號氏가統監府에專賣特許權을承 認하노는바其編織이今年에는大端堅緻하고品 質이極히完實하노는바塵汗의汚濁을水에沈호는素 茶로洗濯하야乾後에戴호는면潔清호는이如新하야 衛生에必要호는물이나數十年을着用하야도弊 傷이無호는리經濟上에亦是便利호는지故로 本國同胞에게만愛顧하노는것을被호는것이나各 國紳士頭上의歡迎受호는와我國工業界에 空前絶後호는大事業인世界에서皆稱호는바인 故로本社에서其特異호는模範과新鮮호는事業을 發展하노는기爲하야支所를開設하고技術이高明 호는教師와手品이敏捷호는人士를雇聘하야精妙 호는方正호는式樣으로別般注意하야製造一新 하노는世界의愛護  
僉君子는陸續購買하노는것을希望호는  
大丘北門外浦上社內  
主務 李重來 告白